

“천군만마가 왔다” 브룩스 컴백에 챔필 ‘들썩~’

KIA 타이거즈의 ‘에이스’ 애런 브룩스가 동료들의 환대 속에 챔피언스필드에 재입성했다.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브룩스는 지난 6일 2021시즌 준비를 위해 챔피언스필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KIA 스프링캠프에 합류했다.

특별한 재회의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동료들이 직접 케이크까지 준비하면서 브룩스를 반겼다.

브룩스는 지난해 9월 22일 가족의 교통사고로 급히 미국으로 떠나야 했다. 작별인사를 할 시간도 없이 기습 풀이며 미국으로 향했던 브룩스는 지난 1월 22일 건강할 모습으로 가족과 한국으로 돌아왔다.

기대하지 않았던 브룩스의 복귀였기에 선수들에게는 반가움이 컸다.

아들 웨스턴이 크게 다졌던 상황, 또 KBO리그를 접수한 특급 실력 때문에 빅리그에서도 브룩스를 붙잡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브룩스는 따뜻한 정과 배려를 보여준 동료와 구단을 위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지난해 팀의 막내로 브룩스와 함께 시즌을 보냈던 정해영은 “다시 보게 돼서 정말 반가웠다. 아침에 출근했는데 브룩스가 있어서 반가운 마음에 가서 안겼다(웃음)”며 “야구도 잘하는데 엄청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다”고 말했다.

자가격리 해제로 주말 캠프 합류

지난해 9월 가족 사고로 미 귀국

빅리그 러브콜에도 다시 KIA 선택

동료들 케이크로 환영 세리머니

윌리엄스 감독도 “반갑다” 환영사

친근한 형 같은 브룩스지만 ‘괴물’같은 선수라는 게 정해영의 이야기다.

정해영은 “브룩스는 괴물인 것 같다”며 “공 던지는 능력, 신체 능력 그냥 모든 게 놀랍다. 생각보다 승부욕이 엄청 강한 선수인 것 같다. 있을 때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확실한 선발 양현종이 도전을 위해 팀을 떠난 만큼 브룩스의 가세는 선수들에게는 ‘천군만마’다.

가을잔치를 꾸미는 홍상삼에게도 브룩스의 복귀는 반갑다.

홍상삼은 “투수 한 명이지만 팀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 크다. 지난해 브룩스가 있었으면 5강 이상 했을 것이다. 브룩스 빠지고 확실히 팀이 많이 처졌다”며 “브룩스가 나가면 이긴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확실히 다르다. 이닝도 7-8이닝씩 던져주는 선수다”고 브룩스의 특별한 가치를 언급했다.

위낙 뛰어난 브룩스의 실력 탓에 한편으로는 볼펜 투수로서 말 못할 고민도 있다.

“우리가 날린 승리가 몇 개죠?”라며 씩스룩하게 웃은 홍상삼은 “브룩스 뒤에 나가서 던지면 힘들다. 위낙 공이 좋으니까 뒤에 나가는 선수들 공이 쉬워 보일 것 같다. 브룩스가 그냥 끝까지 혼자 던지는 게 나을 것 같다. 우리 공보면 타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치려고 할 것이고 자존심도 상한다. 혼자 9이닝을 책임져주면 좋겠다(웃음). 브룩스의 존재감이 엄청 크다”고 브룩스 복귀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난 시즌 같은 모습을 주문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브룩스가 지난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적응도 잘했고, 좋은 활약을 해줬다. 작년 캠프 때 보다는 던지는 것 등을 가볍게 진행하도록 생각이다”며 “브룩스도 그렇고 가족도 빨리 돌아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 지난해 정말 힘든 일들을 겪었지만, 브룩스와 그의 가족은 완벽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줬다. 돌아와서 반갑다”고 밝혔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



브룩스

식단부터 타격까지... 모든 걸 다 바꿔~



핫 플레이어 박찬호

1164 이닝 수비...타격 최하위

반전 위해 기본기부터 다시 시작

체력 바탕 타격 기술 업그레이드

“꿀짜” 박찬호가 2021시즌 다 바꾼다. KIA 타이거즈 유격수 박찬호에게 지난 시즌은 길고 길었다. 늦어진 개막 시즌 마지막까지 그라운드 오르면서 1164.1이닝을 소화했다. 리그 전체 4위의 수비 이닝이었다.

주전을 꿰차고 데뷔 후 가장 많은 경기에 나섰지만, 성적은 좋지 못했다. 531타석에서 107개의 안타를 만들어내면서 타율 0.223, 볼넷은 36개 그쳤지만 87차례 삼진으로 물러났다.

타격 꿀짜 타이틀을 차지한 박찬호는 “그게 내 실력이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방망이가 중요하다. 지금 이대로 가면 평생 백업, 대수비 요원에 그칠 것이다”고 냉정한 자평을 했다.

반전을 위해 박찬호는 식단부터 바꾸면서 ‘변화의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박찬호는 “비시즌을 보내면서 선수 생활 중 가장 많은 웨이트를 했다. 많이 탄탄해졌다. 강해졌다는 것을 느낀다”며 “발전을 위해 모든 부분을 바꾸고 있다. 식생활 습관 모두 다 바꾸고 있다.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식사시간도 규칙적으로 가져가려고 한다. 이제 야 관리를 시작한다는 게 아쉽지만 아직 할 날이 많다. 긍정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변화의 중심에는 ‘체력’이 있다. 체력을 바탕으로

로 꾸준한 실력을 만들기 위한 박찬호의 노력이다.

박찬호는 “힘은 강하면 강할수록 좋다. 몸 관리는 선수 생활에서 평생 숙제인 것 같다. 지난 시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기도 했다”며 “수비는 예전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많은 이닝을 뛰면서 매 순간 모든 공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집중력을 높여가는 게 중요하다. 몸이 힘들면 확실히 집중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기술·체력적으로 준비가 안됐던 것 같다. 지난 시즌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다는 것을 배웠다.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제는 체력을 핑계 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타격 강화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고민하는 그는 ‘중심’과 ‘회전력’에 변화를 주며 ‘탈꿀짜’를 선언했다.

이번 캠프에서 윌리엄스 감독의 조언 대로 타격 중심을 뒤로 옮기는 연습을 할 예정이다.

박찬호는 “중심 이동은 시간이 오래 걸릴 부분은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보태는 일여서 완전히 싹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 회전력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강해진 체력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타격에 임할 생각이다.

박찬호는 “강한 타구를 만들기 위해 몸 회전에 신경을 많이 썼다. 스윙 궤도는 2019년이나 지난해나 변화가 없는데 회전력을 신경 쓰다 보니 스윙이 크다는 소리가 나왔다”며 “강한 타구를 만들고 싶어서였는데 공은 내 마음대로 오지 않는다. 회전력을 의식적으로 신경 쓰다 보니 내가 주체를 못 했던 부분이 있다. 자동으로 회전은 되니까 자연스럽게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박찬호는 마음도 바뀌서 새 시즌을 맞이할 계획이다. 박찬호는 “올해 잘하는 건 기본으로 깔아놓고 스트레스 안 받고 즐겁게 야구를 하는 게 목표다.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일단 잘 해야한다(웃음)”며 “잘하는 박해민, 김상수 형을 보면 항상 웃으면서 즐겁게 한다. 그런 모습이 보기 좋고, 즐거워 보인다. 나도 방향성을 그렇게 가져갈 생각이다”고 밝혔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

벤투호 ‘손’ 없는 월드컵 2차 예선

FIFA, 코로나에 선수 의무 차출 규정 완화... 해외파 합류 못할 가능성

다음 달로 예정된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 손흥민(토트넘) 등 해외파 선수들이 합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겼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올해 4월 말까지 선수 의무 차출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A매치(국가대표팀 간 경기) 기간 모든 구단은 각국 대표팀의 선수 차출 요청에 응해야 하지만, FIFA는 지난해 8월 코로나19에 따라 선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임시로 차출 규정을 완화한 바 있다.

대표팀에 선수를 보내줘야 하는 클럽의 국가가 도착 이후 5일 이상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면 대표팀 소집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또 경기가

치러질 국가가 5일 이상 자가격리가 필요할 경우에도 차출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FIFA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규정을 올해 4월 말까지 연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선수가 A매치 이후 자가격리 때문에 소속팀 일부 경기에 나설 수 없는 경우가 있는 만큼, 구단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결정이다. 그러나 대표팀은 해외파 선수들 없이 A매치를 치러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은 다음 달에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2경기(홈 경기 1회·원정 1회)를 치르고, 6월에는 월드컵 2차

예선 2경기(모두 홈경기)와 친선전 2경기를 펼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3월 예선 경기 일정도 불투명하고, 예선 4경기가 모두 6월로 미뤄질 수도 있다.

3월에 예정대로 두 경기가 치러진다고 해도 해외파 선수들의 소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영국의 경우 그동안 한국 등 코로나19 감염률이 낮은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이들의 격리를 면제해 왔으나, 지난달 18일부터 모든 입국자의 10일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사비를 들여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를 해제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영국도 작 5일 뒤에 가능하다.

조치가 3월까지 완화되지 않는다면 손흥민은 최소 5~10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소속 선수의 대표팀 차출에 부담을 느끼는 해외 구단들이 선뜻 선수들을 내줄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

최지만 연봉 ‘지난해 3배’

구단과 연봉 조정서 ML 유일 승리...올 27억5천만원

최지만(30·탬파베이 레이스)이 구단과 맞붙은 미국프로야구(MLB) 연봉조정에서 승리해 올해 245만달러(약 27억50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AP 통신은 3명의 위원으로 이뤄진 연봉조정위원회가 최지만의 손을 들어줬다고 6일(한국시간) 보도했다.

최지만은 연봉 협상에서 245만달러를 요구했고, 구단은 185만달러로 맞섰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 양측은 연봉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기대기로 했다.

연봉조정위원회는 5일 양측의 얘기를 청취한 뒤 하루 만에 최지만의 승리를 선언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팀당 60경기만 치른 지난해에 최지만은 경기 수에 비해 연봉이 줄어든 탓에 인센티브를 포함해 42만7148달러만 받았다.

팀당 162경기로 돌아간 올 시즌이 예정대로 끝난다면 최지만은 작년보다 6배 가까이 많은 돈을 가져간다.

특히 2010년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연봉 100만달러 이상을 받아 최지만은 큰 보람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연봉조정위원회가 오프 시즌 13건의 조정 신청 사례 중 3건의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최지만만이 유일하게 구단을 이겼다. /연합뉴스